

예술고등학교 한국무용 입시 준비의 지역 간 격차에 관한 탐색적 사례 연구

이서영* · 정승혜** · 안병주***

I. 서론
II. 연구 방법
III. 연구 결과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심화된 인구감소 문제는 학령기 인구 감소로 이어져 교육 체계 전반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서울신문, 2025). 특히 학령기 인구 감소의 직격탄은 서울/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로 이어진다. 이미 서울대학교 진학 신입생 비율이 서울/경기/세종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경향신문, 2024), 지역의 대학이 폐교하는 현상을 빈번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부산, 울산, 경상도 지역의 대표적인 예술대학인 부산예술대학의 폐교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국제신문, 2025).

이러한 문제는 예술 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사회 전반적 현상으로 나타난 지역 불균형 문제는 예술교육의 지역 격차 문제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전국적 문화예술관련 인프라 밀집도에서도 서울/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는 큰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4).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공연되는 한해의 작품 수, 활동하는 예술인 수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의 예술교육 양적 질적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나영, 2025, p. 19).

특히 관련 문제를 무용 교육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2015년도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 바로 지역의 대학 무용학과이다. 실제로 취업률이 매우 저조한 무용학과는 2005년 충청도 지역의 서원대학교 무용학과와 폐교를 시작으로 약 10개 대학의 무용과 폐과¹⁾가 단행되었다(이종희, 2020, p. 32). 또한 2015년 이후에는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무용

* 주저자, 경희대학교 무용과 석사과정

** 공동저자, 경희대학교 무용과 강사

***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무용과 교수, dancefan@daum.net

1) 대전대학교(2009), 동아대학교(2012년), 원광대학교(2012년), 대진대학교(2014년), 우석대학교(2014년), 순천향대학교(2014년), 광주여자대학교(2015년), 예원예술대학교(2017년), 경성대학교(2017년)

학과의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거나 전공 정원이 축소하여 인접 예술 전공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홍애령, 2025, p. 1).

이러한 폐과의 흐름은 지역 무용교육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무용교육은 인적자원과 주변의 문화 자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이해원, 2024, p. 144). 이때 지역의 전문 무용 인재 양성의 감소는 전문 지도가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는 도제식 교육의 기반의 지도자에 의존된 무용 교육의 구조 체제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작용될 수 있다(최재희, 2024, p. 178). 이에 더해 무용 전문인 양성의 주축이 되는 예술고등학교의 입시 교육 측면에서 지역 무용 교육 인재 감소 문제는 지역 예술 교육의 구조적 문제로도 작용될 수 있다. 그리고 관련 문제는 교육 기회의 공평성과 지역 균형 발전이나 교육 정책적 관점뿐 아니라 무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문화 정책적 관점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이때 무용 전공 중에서도 한국무용 전공을 살펴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한국무용은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의 근간이다. 더욱이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현실에서 한국무용의 지속 발전을 위한 노력은 당위적 과제와도 같다. 따라서 한국무용의 지속적인 보존과 창조적 계승에서 한국무용 인재 양성은 가장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지역 간 균형 있는 한국무용 교육의 발전은 전통문화의 균형적 전승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관련 문제를 예술고등학교 입시 교육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예술고등학교는 한국 무용 입시 교육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독특한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예술고등학교에서는 조기 예술 교육을 통한 전문 무용인 양성이라는 명확한 교육 목표 하에 체계적인 무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전공별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술고등학교의 무용 교육은 일반계 고등학교와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전공 실기 시간이 주당 2시간에서 6시간 내외로 배정되어 있으며, 각 대학별 출신의 전문 강사진이 초빙되어 대학별 맞춤형 입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강지선, 2020; 최진술, 2023). 특히 예술고등학교에서는 실기 시험을 학기마다 2~3회 실시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진학반을 편성하여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창작발표회, 졸업발표회, 각종 콩쿠르 참여 등을 통해 실전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무용 입시 교육의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환경과 시스템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추고 있어, 한국무용 입시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술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즉, 한국무용 입시 준비는 단순히 개인적 노력의 결과가 아닌 복합적인 구조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정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는 교육 기회의 공평성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교육정책적 관점뿐만 아니라 한국무용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문화정책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 체계는 서울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무용 분야에서는 지방 대학 무용학과가 거의 소멸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역 균형 예술 교육의 실태를 진단하고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그간의 선행연구는 무용 입시 및 대학 진학 관련 연구는 크게 입시 제도 및 준비 현황을 분석한 연구와 진학 요인 및 경험을 탐색한 연구로 구분된다. 먼저 제도 및 현황 연구는 무용 입시의 구

조와 평가 방식,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며 입시의 획일화와 과도한 경쟁, 평가 기준의 한계를 지적하였다(이미영, 2016; 이지설·윤정옥, 2023). 또한 일부 연구는 강사 및 수험생의 관점에서 입시 준비 과정의 경험과 어려움을 조명하였다(박수진, 2006; 이수미, 2005; 최진솔, 2023). 한편, 진학 관련 연구는 진학 동기와 선택 요인, 경험을 중심으로 대학 진학 과정의 일부 특성을 규명하였다(황규선, 2002; 유은주, 2007; 김정훈, 2016; 고신영·백현순, 2017; 성주현, 2024; 김선아, 2005).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집단이나 개별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어 입시 준비 과정의 구조적 양상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온라인 정보 환경과 SNS 기반 정보 교류, 수도권 집중 현상 등 최근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술고등학교 한국무용 입시 준비에 있어 지역 간 격차를 사례 중심으로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별 예술고등학교의 한국무용 입시 준비 양상을 검토하고, 각 예술고등학교의 지역별 한국무용의 입시 준비 실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무용 교육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입시 교육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예술고등학교 무용 입시 교육의 구조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지역별 차이의 원인과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무용 교육정책 수립과 입시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예술고등학교 무용 교육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무용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전통문화의 균형적 전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갖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대학교 무용학과에 재학 중인 예술고등학교 졸업생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재 자신이 속해 있는 학교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가장 최근까지 예술고등학교를 다닌 대학교 1, 2학년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교육의 실태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육 경험 조사에 있어 연구 참여자와의 1:1 심층 면담 방식을 활용하였다. 물론, 예술고등학교 무용 전공생의 입시 결과는 각 예술고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입시 준비 과정의 경험은 학교의 공식적 경험 외에도 학생들의 비공식적 레슨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음에 따라 비공식 정보를 모두 통합할 수 있는 개인 경험 조사를 연구 방법으로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입시 준비 과정에서 경험한 실기 교육의 질적 측면과 체감적 경험을 상세히 탐색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말하는 입시 준비는 필기 시험을 포함하지 않고, 실기 중심의 준비 과정으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따라서 필기, 이론, 학과 성적과 같은 요소는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예술고등학교의 실기 교육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서울권과 지방 예술고등학교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에 따른 교육 환경과 입시 준비 경험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예술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개인이 대학을 선택하는 것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모든 학생이 상급 학교 진학을 목표로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서울·경기권 소재 대학교 무용학과 재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기관의 경쟁력이 평가되는 실질적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2023)에 따르면, 수도권 사립대학의 입학경쟁률이 13.3:1인 반면 비수도권 국·공립대학의 경쟁률은 7.4:1에 불과하다. 수도권 대학에 대한 수험생의 선호가 실질적인 입시 행동으로도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며, 수도권 상위권 대학 진학 여부가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사회적 준거로 기능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서울·경기권 대학 재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설정한 것은 예술고등학교 무용 입시 교육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가시화되는 맥락을 연구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의 현실 타당성(ecological validity)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적 근거에 기반한다. 다만, 이러한 설계로 인해 지방 소재 대학 진학자의 교육 경험과 관점이 충분히 포괄되지 못하였다는 점은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남는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및 소재 대학 재학생을 포함한 비교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대학지성, 2024).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가자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질적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확률표집법 중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과 눈덩이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지역별 차이를 탐구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한 다양한 지역의 예술고등학교 출신자들을 포함하고자 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적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11명의 연구 참여자가 선정되었으며, 모든 참여자는 만 20~21세의 서울/경기권 대학 무용학과 재학생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의 출신 예술고등학교는 지역적 다양성을 보여주며, 경북예술고등학교, 계원예술고등학교, 광주예술고등학교, 국악고등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브니엘예술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안양예술고등학교, 전남예술고등학교, 충남예술고등학교 등 11개 학교 출신으로 구성되었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수도권 지역 예술고등학교 출신이 5명(서울예술고등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계원예술고등학교, 국악고등학교, 안양예술고등학교), 비수도권 지역의 예술고등학교 출신이 6명(충남예술고등학교, 경북예술고등학교, 전남예술고등학교, 브니엘예술고등학교, 광주예술고등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인 지역별 예술고등학교 입시 준비 구조 실태와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에 적절한 구성으로 판단된다.

3. 질문지 구성

본 연구의 질문지는 예술고등학교 한국무용 입시 준비에 있어 지역 간 격차를 사례 중심으로 탐색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 질적연구 방법 중 심층면담을 활용한 본 연구는 무용 입시 준비의 다면적 측면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외 5개의 주요 영역, 기타 질문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전공 분야, 학력, 현재 재학 대학, 학년, 출신 예술고등학교 및 지역, 거주지, 무용 경력, 진학 동기 등을 포함하였다. 특히 '출신 예술고등학교의 지역' 항목은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지역별 차이를 탐구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설정되었다. 이외 5개의 주요 영역에 대한 질문지 내용 구성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기 수업 현황에 관한 질문이다. 실기 수업 현황에 관한 질문들은 이지설과 윤정옥(2023), 김선아(2002), 강지선(2020)의 연구에서 제시한 무용 입시제도의 실기고사 중심 체계 분석을 이론적 배경으로 구성되었다. 이지설과 윤정옥(2023)은 현재 대학 무용학과 입시가 60~100%의 비율로 실기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작품'과 '따라하기'가 주요 평가 요소임을 밝혔다. 이러한 실기 중심의 입시 체계를 고려하여 본 질문지에서는 정규 교과 내 전공 수업, 부전공 수업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교육내용, 시간, 강사진 구성, 운영 시스템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진술(2023)의 연구에서 제시된 예술고등학교 출신 무용강사들의 입시지도 경험을 참고하여, 각 수업이 입시 준비에 미치는 실질적 도움 정도를 파악하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관련 질문을 구성하였다.

둘째, 대외활동 및 행사 참여 현황에 관한 질문이다. 대외활동 관련 질문들은 박수진(2006), 성주현(2024), 강지선(2020)의 연구에서 제시한 무용학과 지망생들의 정보 획득 경로와 실기 준비 실태 분석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구성되었다. 박수진(2006)은 무용 지망생들이 주로 학교 밖에서 정보를 얻고, 사설학원에서 4시간 이상 연습하며 입시를 준비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학교 외부 활동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본 질문지에서는 교외 실기 경험, 무용 콩쿨 참가, 외부 공연 참가, 예무제²⁾ 및 발표회 참가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참여 방식과 입시 준비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강사 배정 시스템에 관한 질문이다. 강사 배정 시스템에 관한 질문은 최진술(2023)과 강지선(2020)의 연구에서 제시된 예술고등학교 무용 입시 준비에서의 실질적 강사 의존도를 참고하였다. 최진술(2023)은 예술고등학교 출신 무용강사 6인을 대상으로 한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예술고등학교에서 강사의 중요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무용학과 입시 전형의 특징이 지도자의 안무 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점, 둘째, 무용강사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자이자 예술성을 반영하는 표본이라는 점, 셋째, 예술고등학교에서의 실기 강사가 폭넓은 실무를 담당한다는 점이다. 강지선(2020)의 연구는 실기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대학별 진학반이 나뉘어 강사 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와 부모의 설득을 통해 상급학교반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 운영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질문지에서는 강사 배정 시스템의 구체적 운영 방식과 강사 의존도 및 지도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였다.

넷째, 평가 시스템에 관한 질문이다. 평가 시스템 관련 질문들은 최진술(2023), 강지선(2020)의 연구

2) 예무제(藝舞祭)는 '예술(藝)'과 '무용(舞)'의 '축제(祭)'라는 뜻으로, 예술고등학교 무용과 학생들이 평소 연마한 예술적 기량과 실기 능력을 무대 위에서 종합적으로 선보이는 정기 발표 공연을 의미한다.

에 제시된 예술고등학교 실기시험 체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구성되었다. 최진솔(2023)의 연구에 따르면, 예술고등학교에서는 실기시험을 학기마다 2~3회 실시하며, 이 시험은 단순히 성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성적으로 대학별 진학반이 나누어져 강사 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실기시험이 평가를 넘어 학생들의 입시 준비 방향과 교육 기회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 또한 강지선(2020)의 연구는 예술고등학교의 실기시험 방식에 대한 구체적 실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예술고등학교 실기시험은 1명씩 실기 시험을 보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때 단체 중심의 수업에 대비 1명씩 실기시험을 보는 구조에서 평소에 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평가 방식과 교육 방식 간의 불일치 문제를 드러내며, 평가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질문지에서는 학교 내 실기시험의 실시 방식, 활용 방법, 입시 준비에 대한 실질적 도움 정도를 파악하여 현행 평가 시스템이 대학 입시와의 연계성, 학생 개별 역량 반영도, 교육적 효과성 측면에서 어떠한 실태를 보이는지 종합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였다.

다섯째, 상담 시스템에 관한 질문이다. 상담 시스템 질문들은 이수미(2005), 강지선(2020), 최진솔(2023)의 연구에서 제시된 예술고등학교의 개별 학생 지도 체계를 이론적 배경으로 구성되었다. 이수미(2005)의 연구는 무용전공 입시생 5명을 대상으로 슬럼프 발생 원인을 신체적/기술적/심리적/환경적 요인으로 분석하고, 슬럼프 극복 방법으로 예방적/치료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입시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체계적 상담과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강지선(2020)과 최진솔(2023)의 연구에서는 예술고등학교에서 강사들이 학생마다 다른 성향과 체형 등의 특성을 고려해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보완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실기 지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개별 상담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본 질문지에서는 상담 시스템의 존재 여부, 운영 방식, 효과성을 파악하는 동시에 강사진과 학교 차원에서 제공되는 개별적 지원과 상담이 입시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의 다면적 어려움 해결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였다.

이외 기타 항목으로 예술고등학교의 여러 시스템 중에 가장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지, 예술고등학교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입시를 준비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구성하였다. 특히 외부에서의 입시 준비는 지역의 예술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원에서 입시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이론적 검토과정에 확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질문을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질문지는 <표 1>과 같으며, 내용 타당도 확보를 위해 무용학 박사학위 소지자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질문의 적절성, 명확성, 연구목적과의 부합성에 대한 검증은 실시하였다. 또한 예비면담을 통해 질문의 이해도와 응답 가능성을 사전 점검하여 최종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표 1〉 질문지 구성

질문 영역	세부 질문	참고 선행연구
정규 교과내 전공 수업	-예술고등학교의 무용 정규 교과내 전공 수업은 1일 평균 몇시간이었으며, 주요 교육내용, 시간, 전체 강사진의 수 등은 어떠했습니까? -정규 교과내 전공 수업 전반이 입시 준비에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강지선(2020), 김선아 (2005), 이지설, 윤정옥(2023)
방과후 무용실기 수업	-예술고등학교의 방과후 무용실기 수업은 1일 평균 몇시간이었으며, 주요 교육내용, 시간, 운영 시스템 등은 어떠했습니까? -방과 후 무용 실기 수업 전반이 입시 준비에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강지선(2020), 김선아 (2005)
부전공 수업	-예술고등학교의 부전공 수업은 1일 평균 몇시간이었으며, 주요 교육내용, 시간, 운영 시스템 등은 어떠했습니까? -부전공 수업 전반이 입시 준비에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강지선(2020)
교외 실기 경험	-교외 실기 경험(강습회, 워크숍 등)은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교외 실기 경험(강습회, 워크숍 등)은 입시 준비에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강지선(2020)
무용 콩쿨 참가	-무용 콩쿨 참가 경험은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예시: 개인이 자율적으로 참가 가능, 오디션을 통해 가능 등) -무용 콩쿨 참가 경험은 입시 준비에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강지선(2020), 성주현 (2024), 박수진(2006)
외부 공연 참가	-외부 공연 참가 경험은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외부 공연 참가 경험은 입시 준비에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강지선(2020)
예무제·발표회 참가	-예무제 및 발표회 참가 경험은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예무제 및 발표회 참가 경험은 입시 준비에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강지선(2020)
강사 배정 시스템	-입시 준비를 위한 강사 배정 시스템은 어떠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입시 준비에서 강사 의존도는 어떠했으며, 입시 준비 전반의 지도 특성과 경험은 어떠했습니까?	강지선(2020), 최진술(2023)
평가 시스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실기시험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실기시험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었습니까? (콩쿨 참여 기회, 희망 대학 선정 및 레슨팀 배정, 예무제 자리선정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실기시험이 입시준비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강지선(2020), 최진술(2023)

상담 시스템	-입시 준비와 관련된 예술고등학교의 상담 시스템이 존재하였습니까? -상담 시스템이 존재하였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상담은 입시준비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이수미(2005)
종합 평가	-위에 제시된 예술고등학교의 여러 시스템 중에서 입시 준비에 가장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부분은 어떠한 것이며, 해당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에 제시한 부분 외, 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입시 준비를 외부 학원이나 레슨을 통해서 준비하였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 내 레슨만으로 입시 준비가 이루어졌다면 응답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선(2020), 김선아 (2005)

4. 자료 수집 처리 방법

모든 참여자는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였으며, 면담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약 3주 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각 면담은 개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의 솔직하고 심층적인 응답을 얻기 위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질적 자료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면담을 통해 수집된 모든 음성 자료는 네이버 클로바 노트(Naver CLOVA Note)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1차 전사를 실시하였다. 네이버 클로바는 한국어 음성 인식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로, 면담 내용의 기본적인 텍스트 변환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음성인식 기술의 오인식, 전문용어의 오타, 문맥상 부적절한 표현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수정하여 전사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전사가 완료된 자료는 내용 범주 분석 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되었다. 내용 범주 분석은 질적 자료에서 의미 있는 주제와 패턴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 기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 질문과 관련된 주요 주제들(실기 수업 현황, 대외활동, 강사 배정 시스템, 평가 시스템, 상담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범주화를 진행하였으며, 지역별 차이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 결과의 내용 범주 분류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응답 결과의 내용 범주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실기 수업 현황	정규 교과내 전공 수업 관련: 수업시간 및 운영 현황	주간 수업 운영 빈도
		일일 수업 시간
		전체 강사진 규모
		고3 시기의 주요 교육 내용

	방과 후 무용 실기 수업 관련	방과 후 무용 실기 수업 운영 유무
		방과 후 수업 운영 학교 중 주간 수업 빈도
		방과 후 수업 운영 시간
	부전공 수업에 관한 연구	부전공 수업 운영 빈도
		부전공 수업의 운영 시간
		부전공 수업의 입시 준비 효과
대의 활동 및 행사 참여 현황	교외 실기 경험 (강습회, 워크숍 등)	교외 실기 경험의 참여 방식
		강습회, 워크숍의 입시 준비 효과
	무용 콩쿨 참가 관련	콩쿨 참가 방식
		무용 콩쿨 참가가 입시 준비에 미치는 효과
	외부 공연 및 예무제 관련	외부 공연 참가 방식
		외부 공연의 입시 준비와의 연관성
		예무제 참가 방식
		예무제의 입시 준비 연관성
	강사 배정 시스템	강사 배정 방식
강사에 대한 의존도		
평가 시스템: 실기시험 운영 방식	실기시험 운영 방식	
	실기시험 활용도	
상담 시스템	상담 빈도	
	상담 내용	
입시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된 시스템		
외부 레슨 현황		

셋째,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용학 박사학위 소지자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통한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삼각검증법은 질적연구에서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해석하는 방법이다. 전문가 집단은 무용 교육학, 무용학 이론, 예술고등학교 교육 현장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박사급 인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자 독립적으로 분석 결과를 검토한 후 상호 토론을 통해 해석의 적절성과 범주화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전문가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수정 사항은 연구자가 재검토하여 최종 분석 결과에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구의 학술적 엄밀성을 확보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실기 수업 현황

가. 정규 교과 내 전공 수업 관련: 수업시간 및 운영 현황

지역별 예술고등학교의 정규 교과 내 무용 전공 수업 시간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간 수업 운영 빈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선화예고, 서울예고, 계원예고, 경북예고, 안양예고, 부산예고는 매일 실기수업을 실시하여 가장 집중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 지방 국공립 학교인 전남예고와 충남예고, 국악고, 브니엘예고, 광주예고는 주 3~4회 실시로 상대적으로 수업 빈도가 낮았다. 이는 국악고를 제외한 서울/수도권의 주간 수업 운영 빈도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일일 수업 시간을 분석한 결과이다. 대부분 학교에서 2~4시간의 실기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경북예고의 경우 최대 6시간까지 운영하여 가장 긴 수업시간을 보였다. 이는 수업 빈도는 적지만 회당 수업시간을 늘려 총 교육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셋째, 전체 강사진 규모를 분석한 결과이다. 현저한 지역별 격차가 확인되었다. 계원예고와 국악고가 약 15명으로 가장 많은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었고, 안양예고가 약 13명, 서울예고와 충남예고가 약 10명, 선화예고와 경북예고, 부산예고가 약 7~8명, 광주예고 약 5명, 전남예고와 브니엘예고가 약 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강사진 규모의 차이는 교육의 질과 다양성, 개별 지도의 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넷째, 고3 시기의 주요 교육 내용을 분석한 결과이다. 대다수 대학별 맞춤형 기본기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학교에서 담당 교사들의 출신 대학을 중심으로 해당 대학의 입시 스타일과 요구사항에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체계적 접근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입시 전략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3학년은 대학별 따라하기 수업이랑 기본 수업이 많았고 개인작품 점검 받는 시간도 있었어요.”
(배고운, 안양)

“3학년 때는 주로 기본과 따라하기를 배웠어요.” (한의상, 계원)

“여러 가지 기본들과 예무제 준비를 했어요.” (양한복, 광주)

이외에도 정규 교과 수업의 입시 준비 효과에 대한 응답이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체계적 기본기 교육을 통한 신체 활용 능력 향상과 각 대학별 특성 파악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별 교육 여건의 격차는 학생들의 입시 준비 역량에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www.kci.go.kr

“기본기가 좀 많이 쌓이면서 아무래도 쌓인 게 있다 보니까 몸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좀 도움이 컸던 것 같아요.” (유하늘, 서울)

“따라하기를 실기시험으로 하면서 학교마다 특성을 조금 알 수 있었고.” (최바람, 경북)

“기본기나 재동작 같은 경우에는 몸을 바로 잡는 데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고츨선, 부산)

나. 방과후 무용 실기 수업 관련

지역별 예술고등학교의 정규 교과 내 무용 전공 수업 시간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 후 무용 실기 수업 운영 유무를 분석한 결과이다. 충남예고, 서울예고, 경북예고, 국악고, 안양예고, 브니엘예고, 광주예고, 부산예고에서는 방과 후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 선화예고와 전남예고에서는 방과 후 수업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단, 방과 후 수업이 없는 학교들의 경우, 선화예고는 정규 수업 시간 외에는 개인 레슨 시간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전남예고의 경우 방과 후 수업 부재로 인한 교육 공백을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학원과 외부 레슨을 통해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계원예고의 경우 1, 2학년만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방과 후 무용 실기 수업은 지역적 차이가 아닌 학교의 교육 철학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둘째, 방과 후 수업 운영 학교 중 주간 수업 빈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부산예고는 주 1회, 안양예고, 브니엘예고, 광주예고는 주 2회를 실시했으며, 충남예고, 서울예고, 경북예고, 국악고는 3~5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예고의 경우 주말까지 포함한 운영으로 가장 집중적인 교육 시스템을 보여주었다.

셋째, 방과 후 수업 운영 시간을 분석한 결과이다. 현재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하는 예술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다수 1회 약 2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방과 후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조사한 결과,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체력 향상, 다양한 강사진을 통한 폭넓은 학습, 개별 맞춤 지도의 기회 제공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정규 수업에서 다루기 어려운 세밀한 개별 지도와 집중적 연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입시 준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러닝 타임이 쉽없이 하니까 체력적으로 강화돼요.” (박노래, 충남)

“춤추는 시간이 많으니까 약간 몸이 붙지 않는 그런 장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약간 강사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선생님들마다 춤 스타일이 또 다르시잖아요.” (유하늘, 서울)

“보통 개인레슨을 하면 그 선생님 스타일로만 고착화 될 수 있는데 심사는 다양한 분이 하시니까 여러 선생님들께 피드백 받으면서 호불호 없는 작품으로 수정되어지는 게 좋았어요.” (장소품, 국고)

다. 부전공 수업에 관한 연구

지역별 예술고등학교의 부전공 수업 운영 빈도, 시간, 입시 준비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전공 수업은 모든 조사 대상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며, 주로 발레와 현대무용으로 구성 되어 있었다. 운영 빈도에서는 학교별 차이를 보였는데, 서울예고는 주 4회, 충남예고, 선화예고, 전남 예고, 국악고, 브니엘예고, 광주예고, 부산예고는 주 2회, 경북예고, 계원예고, 안양예고는 주 1회 실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전공 수업의 운영 시간을 분석한 결과, 모든 학교에서 회당 2시간씩 운영하는 것은 공통적이 었다.

셋째, 부전공 수업의 입시 준비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에 따라 상반된 평가가 나타났다. 긍정적 평가를 한 학생들은 주로 신체 활용 능력 향상, 표현력 증진, 기본기 강화 등의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평가 했다. 특히 발레 기본기가 한국무용의 다리 사용법이나 중심 잡는 법에 도움이 되고, 현대무용을 통한 표현력 향상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국무용에도 많이 도움이 돼요. 특히 다리 사용법이나 중심 잡는 법 같은 거요.” (유하늘, 서울)

“코어 잡는 데에 도움이 됐어요.” (오무대, 선화)

“부전공도 입시에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최바람, 경북)

“현대무용은 한국무용 창작과 비슷하다 보니까 큰 움직임들을 배우면서 동작의 유연성이나 다양 성이 생긴 것 같았어요.” (장소품, 국고)

“유연성 발달과 체형 교정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한의상, 계원)

반면 부정적 평가를 한 경우에는 입시와의 직접적 연관성 부족과 시간 배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제한된 입시 준비 시간에서 전공에 집중해야 한다는 현실적 제약과 부전공 수업의 필요성 사이의 갈등 이 나타났다.

“부전공은 특히나 더 관련이 없고.” (서조명, 전남)

“입시에 치중할 때인데 발레, 현대를 등한시 하는 애들이 많아서 수업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양한복, 광주)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부전공 수업의 효과는 개별 학생의 전공 역량과 입시 목표, 그리고 수 업의 질적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무용 전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입시에 실질 적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대외활동 및 행사 참여 현황

가. 교외 실기 경험(강습회, 워크숍 등)

지역별 예술고등학교의 교외 실기 경험을 참여 방식과 입시 준비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외 실기 경험의 참여 방식을 살펴본 결과이다. 특히 강습회 참여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임 선생님의 추천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단, 전남예고와 부산예고는 강습회 또는 워크숍에 미참여하고 있었고 광주예고의 경우에도 학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습회 참여 방식은 학생의 자율적 선택보다는 학교나 담당 교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강습회에서는 오디션을 통한 선발과정이 있어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강습회 참여 기회의 제한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전남예고의 경우 강습회, 워크숍 참여 기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적 접근성과 정보 접근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지역별 편차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제기한다. 부산예고의 경우 강습회, 워크숍의 참여 보단, 선생님들을 초청하여 특강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냥 추천이지만 빠질 수가 없는.” (유하늘, 서울)

“전임 선생님께서 공지를 해주시면 참여자를 받는 방식도 있었고, 희망 대학에 중요 일정이 있으면 추천받고 나갑니다.” (박노래, 충남)

“강습회나 워크숍은 참여한 적이 없어요.” (서조명, 전남)

“다 학원에서 추천해주시고, 나가고 싶은 강습회나 워크숍은 자유롭게 참여했어요.” (양한복, 광주)

둘째, 강습회, 워크숍의 입시 준비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강습회와 워크숍 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이거나 제한적 평가를 받았다. 직접적인 입시 도움보다는 인맥 형성이나 레퍼토리 확장 등의 부수적 효과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적 제약과 깊이 있는 학습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 등이 주요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일부 긍정적 측면도 확인되었다. 대학 교수진과의 만남을 통한 정보 획득, 다양한 작품 접촉 기회,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한 동기부여 효과 등이 있었다. 이는 강습회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무용계 네트워크 형성과 시야 확장의 기회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통 단기적으로 하루만 하고 끝나니까 순서 외우기만 급급하다가 끝났던 것 같아요.” (유하늘, 서울)

“워낙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수업하고, 앞줄에 서지 않는 이상 잘 보이지 않고 인파에 휩쓸려서 춤만 추다 오는 느낌이었어요.” (배고운, 안양)

“교수님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기회니까.” (장소품, 국고)

“하나라도 더 돋보이고 싶어서 열심히 하게 되고, 학교를 밟아보면서 목표의식이 더 커진 느낌이에요.” (양한복, 광주)

나. 무용 콩쿨 참가 관련

지역별 예술고등학교의 무용 콩쿨 참가 방식과 입시 준비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콩쿨 참가 방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충남예고와 선화예고는 선생님 추천 후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경북예고와 계원예고는 학교 내 오디션을 통해 학생의 춤을 파악한 후, 콩쿨 참가에 대해 논의하는 시스템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었다. 특히 동아무용콩쿨과 같은 권위 있는 콩쿨의 경우 실력 있는 학생들을 선별하여 참가시키는 전략적 접근을 보였다.

전남예고의 경우 개인 자율 참가 방식으로 학교의 체계적 지원이나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는 다른 교육 활동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교육 격차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선생님들께서 나가라는 거 위주로 나가.” (박노래, 충남)

“중간 점검 오디션으로 콩쿨을 지정해주세요.” (장소품, 국고)

“레슨 선생님하고만 소통해서 자율적으로 참가해요. 학교에서 특별히 추천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서조명, 전남)

“동아만 오디션 1, 2차 있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참가 가능해요.” (고춘선, 부산)

둘째, 무용 콩쿨 참가가 입시 준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강습회와 달리 입시 준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콩쿨 참가 방식은 학교별로 다양했지만, 모든 응답자가 콩쿨의 교육적 효과를 높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콩쿨 참가의 입시 준비 효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실제 입시와 유사한 환경에서의 경험 축적, 무대 경험을 통한 자신감 향상, 객관적 평가를 통한 실력 점검, 작품 준비 과정에서의 기술 향상 등 다방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대에서의 긴장감 극복과 표현력 향상, 그리고 경쟁을 통한 자극과 동기 부여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콩쿨이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콩쿨 참가에도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 시간적 투자 등의 제약 요소가 있었다. 특히 지방 학교의 경우 서울에서 개최되는 주요 콩쿨 참가를 위한 추가 비용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수로서 무대를 선다는게 항상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하다보니 눈빛이나 표정 이런 거를 보완해서 무대 때 안됐던 것을 입시 때 고치려고 노력.” (박노래, 충남)

“콩쿨 시즌에 반복 연습을 하기 때문에 입시 기간 따라하기를 해야 될 때 굳이 작품을 많이 연습하지 않고, 한번씩만 해도 됐다.” (유하늘, 서울)

“콩쿨을 통해서 심사위원분들 눈에 익히고, 등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제 자신이 어느 정도에 있는 구나를 체크하면서 보완할 점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최바람, 경북)

“콩쿨을 준비하다보면 동작을 많이 바꿔주시는데 빨리 흡수하는 것에 있어 대처가 생기고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는 느낌.” (한의상, 계원)

“다른 예고 학생들 실력을 파악할 수 있고, 동작을 다듬는 과정을 거치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해요.” (고춘선, 부산)

다. 외부 공연 및 예무제 관련

지역별 예술고등학교의 외부 공연 및 예무제 참가 방식과 입시 준비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외부 공연

첫째, 외부 공연 참가 방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주로 지역 축제나 학교 홍보 목적의 공연에 참가하는 형태였다. 연간 2~3회 정도의 참가가 일반적이었으며, 대부분 학교에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둘째, 외부 공연의 입시 준비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대부분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입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적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입시를 앞둔 고3 시기에는 이러한 활동들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일부 간접적 효과는 인정되었다. 무대 경험 축적, 협동심 함양, 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였다. 또한 동료들과의 협력 경험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한 2~3번” 지역 축제 등에 참여.” (박노래, 충남)

“외부 공연은 따로 한 적 없어요.” (오무대, 선화)

“학교 시간에 입시 관련된 춤을 더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 (박노래, 충남)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요.” (오무대, 선화)

“1년에 1~2번 정도 해요.” (고춘선, 부산)

2) 예무제

첫째, 예무제 참가 방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예무제의 경우 모든 학교의 대표적 행사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대부분 학교 주도의 의무적 참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의 선택권은 상당히 제한적이

었다. 예무제는 학교별로 상당한 규모와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둘째, 예무제의 입시준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예무제는 입시 준비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낮지만, 종합적 무대 경험과 협동 능력 개발 측면에서는 일정한 교육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상반기에는 개인작품을 세우는 동무독백 한 번, 하반기에는 예무제 한 번.” (서조명, 전남)

“3학년 때는 학교 강당에서 한국, 현대, 발레 강사 선생님들 다 모여서 따라하기, 개인작품을 보여드리는 자리도 있었어요.” (장소품, 국고)

“입시랑은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한의상, 계원)

“고3 때는 서울로 레슨을 가서 학교를 많이 못 가다 보니 예무제를 준비하는 과정이 더 혼란스럽고 일정이 복잡해졌어요.” (양한복, 광주)

“군무로 입시를 보는 건 아니니까.” (이숨결, 브니엘)

3. 강사 배정 시스템

지역별 예술고등학교의 강사 배정 방식과 강사 의존도를 살펴본 결과이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사 배정 방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강사 배정 시스템은 학교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학생들의 입시 준비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학생 의견이 반영되는 학교와 학교가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학교로 나뉘어 상당히 대조적인 시스템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충남예고, 서울예고, 계원예고, 브니엘예고, 부산예고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배정하는 반면, 선화예고, 경북예고, 국악고, 안양예고는 학교에서 일방적인 배정에 따른다. 또한, 전남예고와 광주예고는 배정시스템 없이 학원과 외부레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의견이 반영되는 학교들의 경우 상담을 통해 학생의 목표 대학과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강사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학생의 출신 희망 대학과 강사의 출신 학교를 매칭시키려는 노력이 있어 보다 전략적이고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구조였다. 반면 학교가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선택권이 제한적이어서 만족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개별 학생의 특성과 목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출신 학교 선생님의 최대한 배정을 해 주려고 선생님께서 해 주셨고.” (박노래, 충남)

“대부분 전임 선생님께서 지정해주시고, 안맞을 경우에만 상담해서 바꿨어요.” (배고운, 안양)

“학교에서 정해주는 대로 배정받아요.” (오무대, 선화)

“저희 학교에는 레슨 선생님이 없고 모두 학원이나 외부레슨으로만 진행돼요.” (서조명, 전남)

“희망하는 대학교나 배우고 싶은 강사선생님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고춘선, 부산)

둘째, 강사에 대한 의존도는 모든 응답자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단순한 기술 지도를 넘어 정신적 지지와 진로 상담, 입시 전략 수립 등 종합적 멘토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는 예술고등학교 무용 교육에서 강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강사 배정 시스템의 차이는 학생들의 입시 준비 효율성과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의 견을 반영한 배정 시스템의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강사진의 질적 수준과 다양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계속 설명을 해 주시고 춤을 춰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건지 그런 얘기도 많이.” (박노래, 충남)

“고 3때, 창작 작품을 처음 받아 단 기간에 실력을 올려야 했기 때문에 경력이 있으신 선생님께 배우고 싶었어요.” (박노래, 충남)

“선생님 출신 대학 따라하기를 배울 때 섬세하게 다 알고 계셔서 입시 준비 할 때 편했어요.” (한의상, 계원)

“입시 레오타드나 이런 사소한 부분부터 멘탈적인 부분까지 봐주시고 체력관리, 개인 작품이랑 따라하기도 전체적으로 다 봐주셔서 많이 의지가 됐어요.” (장소품, 국고)

4. 평가 시스템: 실기시험 운영 방식

지역별 예술고등학교의 평가 시스템은 실기시험 운영방식과 실기시험 활용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기시험 운영 방식을 살펴본 결과이다. 실기시험 운영 방식은 학교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충남예고, 전남예고, 서울예고, 국악고, 안양예고, 브니엘예고는 학기별 2회(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시하는 반면, 선화예고, 경북예고, 계원예고, 광주예고, 부산예고는 학기별 1회(기말고사)만 실시하고 있었다.

“일년에 4번 있는 실기시험에 3학년 때는 대입 모의 실기평가 4번이 있어서 총 8번을 시험봤어요. 거의 달마다 시험을 본 거죠.” (배고운, 안양)

“학기에 두 번씩해서 1년에 4번 있어요. 3학년 때는 개인작품이랑 따라하기 대학 4개정도 봤었어요.” (유하늘, 서울)

“3학년 때는 따라하기랑 자기 작품 봤었어요.” (오무대, 선화)

“3학년 때는 외부 교수님이 오셔서 작품이랑 따라하기 보여드리는 시험도 있어요.” (한의상, 계원)

“고3 때는 2학기때부터 한달에 한번씩 모의고사가 있어요.” (고춘선, 부산)

둘째, 실기시험 활용도를 살펴본 결과이다. 대부분 입시 준비보다는 학교 내부의 교육 관리와 학생 배치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레슨팀 배정, 진학 지도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콩쿨 참여 기회 결정이나 외부 활동 선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실기시험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형식적인 평가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 실제 입시 준비나 실력 향상에 직접적 도움이 되기보다는 학교의 행정적 필요에 의한 평가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기시험 결과의 피드백이나 후속 지도에 대한 체계성은 학교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일부 학교에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별 상담이나 보충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단순한 점수 부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평가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는 입시 준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개별 맞춤 지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무제 자리 선정에 영향이 있어요, 전체군무에서 오프닝이나 솔로를 결과에 맞춰서 상위권 친구들에게” (브니엘)

“실기시험이 입시시험처럼 홀에서 보니까 분위기를 익히는 데에 도움이 됐어요.”(서조명, 전남)

“따라하기를 다양하게 외워보니까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외우면 되는지도 알게되고, 대학마다 춤 스타일도 익힐 수 있어서 좋았어요.” (유하늘, 서울)

“실기시험이 다른 데에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내신 점수 매기는 거에만” (장소품, 국고)

“예무제 자리 선정할 때, 시험 결과에 맞춰서 상위권 친구들이 1장 오프닝이나 전체 군무의 센터나 솔로를 맡아요.” (이숨결, 브니엘)

“점점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양한복, 광주)

5. 상담 시스템

지역별 예술고등학교의 상담 시스템은 상담의 빈도, 내용, 효과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 빈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기적인 상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빈도는 학교별 평균 월 1~2회로 진행되었다. 대부분 담당 강사나 담임교사와의 개별 상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입시가 가까워질수록 상담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단, 광주 예고는 상담 시스템이 없어 빈도가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이다. 주로 입시 전략, 목표 대학 설정, 개인 실력 점검, 진로 방향 등 종합적인 진학 지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또한 정신적 지지와 동기부여, 학습 방법 개선 등 심리적 측면의 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셋째, 상담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학생들의 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특히 개별적 관심과 맞춤형 조언, 그리고 지속적인 격려를 통해 입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특히

상담 시스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인 상담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상담 결과의 교육 과정 반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년 동안 한 학기의 시작에 꾸준히 상담을 했었고, 입시 직전에도 했어요.” (최바람, 경북)

“2학년 말에 입시 상담을 하고 나서 레슨팀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유하늘, 서울)

“학기 시작할 때 한번, 입시 다가와서 전임 선생님과 부모님이랑 함께 시험 볼 학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노래, 충남)

“전임선생님이랑 같이 입시 반영 비율과 성적표를 같이 보면서” (한의상, 계원)

“전임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딱히 필요하지 않았어요.” (서조명, 전남)

“용기내지 못했던 학교들을 추천받아 써보고, 현재 학생의 상황이나 상태를 고려해서 입시 준비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고춘선, 부산)

6. 입시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된 시스템

입시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된 시스템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콩쿨 참가와 강사 배정/레슨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실전 경험과 개별 맞춤 지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콩쿨 참가를 가장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꼽은 학생들은 실제 입시와 유사한 환경에서의 경험 축적과 무대 적응력 향상을 주요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긴장감 속에서의 표현력 발휘와 객관적 평가를 통한 실력 점검의 기회로서 콩쿨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강사 배정/레슨을 선택한 학생들은 개별 맞춤 지도와 지속적인 피드백, 그리고 정신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자신의 부족한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서 개별 레슨의 효과를 인정했다.

정규 실기 수업을 선택한 경우에는 체계적 기본기 교육과 대학별 맞춤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다양한 강사진을 통한 폭넓은 학습과 동료들과의 절차타마를 통한 실력 향상을 주요 장점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입시 준비에서 실전 경험, 개별 지도, 체계적 교육이 모두 중요하지만, 개별 학생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균형 있게 제공하되, 개별 학생의 필요에 따른 선택적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콩쿨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었어요.” (서조명, 전남)

“개별 레슨에서 선생님이 세심하게 지도해주셔서 많이 늘었어요.” (오무대, 선화)

“다른 학교보다 방과 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해요. 대학별 수업이 체계적으로 잘 되

어있고 분반수업이 만들어지면서 대학별 따라하기와 개인작품을 여러 출신 선생님께서 봐주시는 게 입시에 최적화 된 거 같았죠” (장소품, 국고)

“시험장소가 입시장소랑 비슷하게 해주시면서 많은 강사 선생님들이 여러 시각에서 평가해주는 기회여서” (배고운, 안양)

“정규 수업에서 기본기를 탄탄히 다질 수 있어서 도움이 됐어요.” (최바람, 경북)

“저희 학교가 자세한 설명보단 반복만 하는 수업 형태였기 때문에 외부레슨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양한복, 광주)

“일대일로 집중적으로 봐주시고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레슨이 가장 도움이 컸던 것 같아요.” (고춘선, 부산)

7. 외부 레슨 현황

외부 레슨 현황은 학교별 교육 시스템의 완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한 입시 준비가 가능한 학교와 외부 레슨을 병행해야 하는 학교로 구분되어, 지역별 교육 격차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었다.

학교 레슨만 실시하는 경우는 충남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 계원예고, 국악고, 안양예고였다. 이들 학교는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충분한 강사진, 그리고 효과적인 입시 준비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외부 레슨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선생님께서 학교에 오실 때는 학교에서 하고, 그 외에는 제가 서울로 가서 레슨 받고 왔어요.” (박노래, 충남)

“학교 선생님들이 워낙 잘 가르쳐주셔서” (유하늘, 서울)

“예종 창작과 시험을 위해 전임 선생님께서 불러주신 선생님께서 부전공과 증흥을 준비했어요.” (장소품, 국고)

“3학년 때 정규수업은 2시간만 있고, 나머지는 레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무대, 선화)

반면 외부 레슨을 병행하는 경우는 전남예고, 경북예고, 광주예고였다. 전남예고와 광주예고의 경우 학교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학생이 서울까지 가서 주말 레슨을 받는 등 상당한 개인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었다. 경북예고의 경우에도 학교 레슨과 외부 레슨, 학원을 모두 병행하는 집중적 학습을 하고 있었다.

“학교 레슨이랑 외부 레슨이랑 학원 모두 다 병행했어요” (최바람, 경북)

www.kci.go.kr

“서울에 선생님께 레슨 받으러 주말마다 올라갔어요.” (서조명, 전남)

“방학 때는 계속 서울에서 지냈어요.”

“학교 수업 끝나고 서울로 올라갔다가 다시 밤에 내려가고를 반복했어요.” (양한복, 광주)

외부 레슨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경우 경제적, 시간적, 신체적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에서 서울로 레슨을 받으러 다니는 경우 교통비, 숙박비 등의 추가 비용과 장거리 이동에 따른 피로감이 큰 부담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외부 레슨을 통해 얻는 교육적 효과도 인정되었다. 다양한 강사진을 통한 폭넓은 학습, 서울권의 최신 입시 정보 접근, 경쟁력 있는 환경에서의 학습 등의 장점이 있었다.

외부 레슨의 필요성은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 시스템의 완성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 학교의 교육 시스템 개선과 강사진 확충, 그리고 서울권과의 정보 격차 해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예술고등학교 한국무용 입시 준비에 있어 지역 간 격차를 사례 중심으로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북예술고등학교, 계원예술고등학교, 광주예술고등학교, 국악고등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브니엘예술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안양예술고등학교, 전남예술고등학교, 충남예술고등학교 출신 서울/경기권 대학 무용학과 재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 예술고등학교 한국무용 전공의 입시 준비 실태를 정규 교과 내 수업 전공 관련 수업 시간에 운영 현황, 방과 후 무용 실기 수업, 부전공 수업에 관한 연구, 대외 활동 참여 현황, 강사 배정 시스템, 평가 시스템, 상담 시스템, 입시 준비에 도움이 된 시스템, 외부 레슨 현황을 살펴보았다. 정규 교과 내 수업은 모든 예술고등학교에서 운영되지만 강사진의 수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눈에 띄게 보였고, 방과 후 수업은 대다수의 학교에 존재하며 수업의 빈도는 학교별 상이하게 나타났다. 부전공 수업은 모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며, 운영 빈도에서는 주 2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습회와 워크숍 참여 방식은 다수의 학교가 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이루어져 참여하는 반면, 전남예고와 부산예고는 참여한 경험이 없었고, 광주예고는 이를 학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공연과 예무제는 대부분 학교에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강사 배정 시스템은 입시 준비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학생 의견이 반영되는 학교와 학교가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학교로 나뉘어 상당히 대조적인 시스템을 보였다. 평가 시스템의 실기시험 운영 방식으로는 학기별 2회 실기시험을 보는 학교 6개교, 학기별 1회 시험을 보는 학교 5개교로 구분되었다. 상담 시스템은 광주예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입시 준비를 위한 상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된 시스템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콩쿨 참가와 강사 배정/레슨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외부 레슨을 진행하는 학교는 전남예고, 광주예고, 경북예고로 지방의 예술고등학교가 학교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학생이 서울까지 가서 주말 레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준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정규 수업은 대부분의 예술고등학교에서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방과 후 수업 및 외부 레슨 운영 방식에서는 학교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수도권 소재 학교의 경우, 학교 내 레슨 시스템만으로도 입시 준비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일부 지역 소재 학교의 경우 외부 레슨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강사 배정 시스템, 평가 시스템, 상담 시스템은 학교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강사 배정과 레슨, 콩쿨 참여가 입시 준비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강습회, 공연, 예무제 등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 보면, 본 연구에 참여한 사례에서는 학교 중심의 실기 수업 환경과 강사진의 구성, 레슨 접근성이 입시 준비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일부 지역 사례에서는 학교 내 교육 환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레슨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개인별 준비 경험의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제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 11개 예술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역별 입시 구조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예술고등학교 전체를 포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분석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모든 학교로 확장하여 살펴볼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입시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요소로 ‘콩쿨 참가’와 ‘강사 배정·레슨’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콩쿨 참여가 실제 입시 결과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항목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후속 연구로 집중 분석하여 입시와 어떤 부분에 효과성을 갖는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강사 배정 시스템은 입시 준비 만족도와 학습 성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 의견 반영 여부, 레슨 방식의 차이가 학교마다 상이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지도 방식과 강사 유형에 따른 지도 효과 비교를 연구함으로써 예술고등학교 무용 교육에서 ‘효과적인 지도 모델’을 제시할 근거로 마련되어 실질적 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지역 간 격차와 교육 시스템의 불균형은 예술고등학교의 실기 교육 체제, 강사 배정 시스템, 평가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임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으나,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기저의 구조적 원인과 인과관계를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예술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보다 다양한 강사진이 지역 예술고등학교에 채용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이나 현실적 제약 요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지역별 예술고등학교 한국무용 전공생의 입시 준비에는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차이가 단순히 구조적인 차이인 것 인지 예술중학교에서부터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적인 문제, 또는 서울/수도권에 생활/교육/문화 수준의 전반적인 영향인지 등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심층 해석이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지선(2020). **예술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의 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신영, 백현순(2017). 무용전공 고등학생의 대학선택 결정요인 및 진로기대 탐색, **한국무용연구**, 35(4), 159-184. <http://doi.org/10.15726/jkd.2017.35.4.001>.
- 김선아(2005). **무용전공자의 대학진학과정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훈(2016). **예술고등학교 현대무용전공학생들의 대학무용공연관람 후 목표 대학 선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수진(2006). **무용학과 지망생들의 입시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 성주현(2024). **무용계 고등학생들의 선호대학 결정 요인 탐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수미(2005). **무용전공 입시생의 슬럼프에 관한 심층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종희(2020). 지역 대학 무용학과의 현황과 전망: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회**, 56, 29-52. <http://doi.org/10.26861/sddh.2020.56.29>.
- 이지설, 윤정옥(2023). 혁신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무용학과 입시제도의 방향. **한국예술교육학회**, 21(3), 127-148. <http://doi.org/10.23317/kaae.2023.21.3.025>.
- 이해원(2024).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용교육의 실천 분석. **무용예술학연구**, 94(1), 143-152. <https://doi.org/10.16877/kjds.94.1.202403.143>
- 유은주(2007). **예술고등학교 무용과 학생의 진학결정, 진학준비 행동유형에 따른 불안과 자기효능감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나영(2025). 인구감소지역 기초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사례 연구. **한국예술연구**, 47, 5-30. <http://doi.org/10.20976/kjas.2025..47.001>.
- 최진솔(2023). **예술고등학교 출신 무용강사의 입시지도 내러티브 탐구**. 석사학위논문.
- 최재희(2024).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 셀프리더십, 대학 생활 적응의 관계. **무용예술학연구**, 94(1), 177-196. <https://doi.org/10.16877/kjds.94.1.202403.177>
- 홍애령(2025).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무용 선택 과목과 교육 방안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98(1), 1-16. <https://doi.org/10.16877/kjds.98.1.202503.1>
- 황규선(2002). **대학진학동기와 전공수업 만족도 조사 연구 : 한국무용 전공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현석(2024. 02. 10). “「2022-2023 고등교육 통계」”. **대학지성**.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19>, 2026. 3. 3>.
- 김서호, 유규상, 김지예(2025. 03. 30). “예산·교사 수급까지 수도권 풀림… ‘개천용’ 사라지는 지방

- 학교”.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plan/system-renovate/2025/03/31/20250331009002>, 2025. 11. 13>.
- 민경진(2025. 11. 06). “무용학과 ‘줄폐과’ 부산, 예술전문대도 존폐위기”. **국제신문**.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51105.99099001727>, 2025. 11. 20>.
- 탁지영(2024. 10. 08). “서울대 신입생 비중, ‘지역 격차’ 갈수록 심화”.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41008060002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2025. 11. 08>.
- 문화체육관광부(2024. 12. 19). “20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site/s_policy/dept/deptView.jsp?pSeq=1950&pDataCD=0417000000, 2025. 10. 29>.

논문투고일 2025. 12. 05.
심 사 일 2026. 02. 19.
심사완료일 2026. 03. 17.

An Exploratory Case Study on Regional Disparities in Korean Dance Admission Preparation at Arts High Schools

Lee, seo-yeong* · Jung, Seung-Hye** · An, Byung-Ju***

Researcher, Master Student, Kyunghee Graduate School* ·
Lecturer, Kyunghee University** · Professor, Kyunghe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dance entrance-exam education in Korean arts high schools and analyzes regional disparities in educational environments. Eleven participants from eleven arts high schools across different regions, all of whom are dance majors at Seoul - Gyeonggi universities, were recruited.

The findings show that, although regular curricular classes are similar, substantial differences appear in after-school lessons, access to external training, and educational resources. Metropolitan schools provide sufficient in-school training systems, while non-metropolitan schools face limitations in instructor availability, opportunities for external lesson, and institutional support. Differences also exist in instructor assignment, evaluation, and counseling systems.

Overall, practical training, instructor assignment, and participation in dance competition are the most influential components of exam preparation, highlighting structural inequalities and the need for equitable Korean dance education policies.

Keywords: Korean Dance(한국무용), Arts high school(예술고등학교), Dance entrance exam(무용 입시), Dance practice(무용 실기), Preparation for entrance-exam(입시 준비)